

백두대간에서 만난 한나 박사

이만봉으로 향해 출발이다. 암봉을 지나고 숲을 지난다. 용바위와 마당바위를 거치면서, 톱날능선으로 탈바꿈한다. 탁 터진 풍광에 마음까지 후련해진다. 심산유곡이라 무장공비의 출현이 잦았다던 분지리가 길의 왼쪽 아래로 아득하다. 오른편으로는 여전히 하얀 바윗돌로 이루어진 희양산의 자태가 우람하다.

체력이 고갈된다 싶을 즈음에 이만봉에 도착한다. 배도 고프기에 은터주막에서 싸준 주먹밥을 푼다. 물 마실 새도 없이 땀 덩어리의 주먹밥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주섬주섬 행장을 챙길 때다. 아래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분명 인기척이다. 누굴까? 궁금해 하는 차에, 고개 숙인 남자 하나가 불쑥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자, “예.”하고 대답하며 내 앞에 폴짝 주저앉는다. 그리고는 얼굴을 드는데, 밝은 웃음을 지닌 이방인이다. 궁금해 하는 내 눈빛을 읽었는지 그는 친절하게도 내 수첩에 Dr. Jeffrey Hanna라고 자신의 이름을 써준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다는 제프리 한나 박사는 61년생으로, 직업이 의사다. 그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

닥터 한나는 산행을 좋아해서 일찍이 네팔 트레킹을 다녀왔다는데, 그때 기념으로 산 배낭을 오늘도 등에 지고 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

친구에게서 백두대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꼭 한번 오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BAIKDUDAEGAN』이라는 영문판 안내서를 지니고 있다. 외국인의 저술인데,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이다. 그 안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에서부터 백두대간에 관한 정보가 알뜰하게 실려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나 박사가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 한글은 읽을 줄 안다는 점이다. 백두대간 안내지도 읽기 위해 일부러 배웠다고 한다. 나는 한글의 편리성과 과학성에 새삼 감탄한다.

나는 짧은 영어로 그의 질문에 답하는 한편, 궁금한 것들을 묻는다. 그는 한 달 전에 지리산에서 백두대간종주산행을 시작했단다. 비가 오거나, 황사가 심한 날을 빼놓고는 줄곧 혼자서 걸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두대간은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한 트레킹이라며 얼굴에 백제미소를 띄운다. 나는 그의 경이로운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로 그 눈동자에 함몰된다. 몽상휴식을 깨워 잠시 후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동행이 된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그는 자신의 지도와 안내책자를 아예 배낭 속에 넣어버린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웃는다. 이제부터는 나보고 길을 안내하라는 의미가 담긴 미소다.

얼마 후 평소부터 시원찮던 무릎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한다.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나는 조금씩 뒤편에 기대앉아 쉬려 한다. 그러나 그는 적당한 지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쉬면서 군것질거리를 나누곤 한다. 길이 모호해진 지점에서도 나를 기다렸다가, 내 판단에 따라 앞장을 선다. 사다리재를 지나 '뇌정산갈림길'로 향하는 오르막에서였다. 내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던 한나 박사가 땅바닥을 향해 낮게 엎드려 있다. 무얼 하나? 천천히 다가가보니, 현호색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그리고는 내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It's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It's Korean name is 현호색."

"Oh! 현호색, 현호색."

우리는 마루금을 따라 걸어가면서, 때로는 바위를 감돌다 협곡을 지나고 로프를 탄다. 매우 위험스러워 보이는 구간에서는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다린다. 그리고는 내가 안전하게 건너는지 지켜본다. 그는 이따금 묻는다.

"Are you OK?"

"All right. I have no problem. Go ahead!"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나는 활기차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오후의 햇살이 어느덧 목덜미에 내려앉는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앞쪽으로, 왼쪽으로 훤히 내다보인다. 오늘의 일정 중에 1064m로 가장 높은 백화산이 눈앞에 자꾸 다가든다. 평전치에서 백화산으로 이르는 길은 바위지대를 오르내린다. 그리고 쳐다만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해발 1001m 높이의 깎아지른 바위봉우리를 우회한다. 길가에는 낙엽을 비집고 나온 여러디 어린 노랑제비꽃과 붓꽃, 노란괴불주머니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명상에 들어 있다.

제법 시원한 바람이 문경쪽에서 불어와 더운 땀을 식혀준다. 이깎나무 아래에서 무성한 잡초들은 눈부시게 빛난다. 나뭇잎들은 살랑살랑 그 소리를 거미줄에 꿰어 흔든다. 황학산을 넘자 이깎나무의 숲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길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죽은 뱀처럼 축 늘어진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 갑자기 길이 왼쪽으로 크게 굽더니만, 노퍽도 아주 널따래진다.

햇살이 이운다. 한층 부드러워진 저녁햇살이 숲을 뚫는다. 체로 친 고운 금빛가루들이 연두에 쏟아져 내린다. 이제 막 잎을 틔우기 시작한 숲은 더욱 싱싱해진다. 키가 1m 85cm는 더 되어 보이는 키다리 백

인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앞쪽에서 걸어간다. 길이 굽는다. 이제 그의 왼쪽 모습이 온전하게 바라보이는데, 저녁햇살이 부서져 내린 그의 어깨는 금빛으로 황홀하게 물든다. 말문이 탁 막힌다. 살아가면서 사람의 모습이, 그것도 초로에 든 남자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인 것은 처음이다. 그는 진정 아름다운 방랑자이다. 아니 자연인, 자유인인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춘 채, 이역에서 온 나그네가 그려내는 찬란한 장면을 가슴에 새긴다.

고속도로 위를 지날 무렵,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다. 앞서 가던 한나 박사도 시야에서 사라진다. 주변이 군사지역이라서 길은 산자락 우측으로 감돌아 내린다. 그 통에 사위가 더욱 어두워진다. 마침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계단은 큰 길을 묻고 있다. 큰 길 왼쪽으로 이화령휴게소가 널찍하다. 광장 한쪽에서 한나 박사가 나를 반긴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이번 구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오늘밤은 우선 인근의 모텔에서 자고, 내일은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당분간 폭 쉬어야겠단다. 5분도 채 기다리지 않았을 때, 미리 전화를 해둔 차가 휴게소 광장으로 도착한다. 나는 한나 박사를 문경시로 태우고 갔다. 그리고 모텔을 찾아 방을 잡아준다. 이별이 아쉽다. 나는 현호색의 꽃말인 빛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한 마디를 남겼다.

"It's nice of you during our tracking. Thanks guy. Good-bye."